

열린마당

구직자의 희망과 함께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박 선 희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고용센터)

2018년 8월 고용센터에 방문한 강지훈(가명, 35세)씨는 공무원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집안 형편상 취업을 해야 하는데 나이에 비해 경력이나 자격증 및 기술이 없어 막막한 상태였다.

강지훈씨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결정하면서 전문상담사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사회복지관련 사무직종으로 취업분야를 정하고, 전산화계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전문상담사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통해 취업알선을 받고 사회복지서비스업 사무직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강지훈씨는 앞으로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취업성공수당 150만원도 지원받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대일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단계별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이며, 참여기간(최대 1년)동안 직업훈련비 및 수당이 지원되는데, 전체 금액은 직업훈련비를 포함하여 1인당 최대 735만4000원이 지원된다.

그 외 단기취업특강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고용센터에 상주해 있는 외부 전문 심리상담 기관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 고민이 있는 구직자 여러분, 지금 취업성공패키지에 도전해보세요.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새로운 희망과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문의 710-4592-3)

농기계 이용, 기술교육 받고 안전하게



문 영 상
제주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매년 농번기 영농시기가 되면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통사고, 둘째는 농작업사고다. 교통사고는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 교차로 신호 지킨 등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에 따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농작업 사고는 알맞은 작업 복장 착용, 사용설명서 숙지, 보호구 착용, 여유로운 농작업 수행 등 안전수칙 준수에 따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마다 '농기계 안전이용 기술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반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상·하반기(5월, 10월)로 나눠서 진행하고, 모집일자는 홈페이지에 공고해 정해진 날짜에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교육 이수시간은 2일 14시간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며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농기계 교통안전 특별과목을 편성, 농기계 도로주행에 따른 사고 예방 교육도 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기술원 임대사업 농기계를 임차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농기계 이용 시 농업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기계에 대한 안전수칙을 배우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서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이용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을 하시길 바란다.

뉴스-in

제주시 “이번 마지막 도전으로 여겼다”

더큰내일센터 관심 집중

○…청년들의 취·창업 발걸음 및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제주더큰내일센터가 사업 대상자들로부터 호응.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첫번째 프로젝트 ‘탈나는 인재’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 가운데, 총 208명(도외 62명·도내 146명)이 지원해 2: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 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 최초의 사업”이라며 “관심이 남다른 만큼 제주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

이소진기자

7530 건강 걷기 행사 눈길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비만을 감소 등을 위해 7530 건강 걷기 행사를 실시해 눈길.

지난 24일 조천읍 교래리자연휴양림에서 열린 행사에는 주민과 15개 마을 걷기동호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

보건소관계자는 “7530이란 세 계보건강기구에서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유방암과 대장암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걷기를 5일간 30분 이상씩 실시해 150분 이상을 운동하자는 취지의 슬로건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고대로그자

삼수 끝에 독서대전 유치

○…제주시가 26일 세 번의 도전 끝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0년 대한민국독서대전 개최지로 확정.

내년 개최되는 제주시를 포함 3개 도시가 경쟁했는데 국비 3억, 도비 5억 등 지방비 부담 비율을 50% 이상 늘리는 등 적극적 행보로 유치가 나선 제주시가 낙점.

시 관계자는 “이번을 마지막 도전으로 여겼다”며 “8월 30일~9월 1일 청주에서 열리는 2019대한민국독서대전에서 차기 개최지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설명. 전선희기자

사설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 수용해야

정부의 반대 속에 ‘행정자치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6일 발의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행정시를 행정자치시로 변경하고 임기 4년의 행정자치시장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은 허용하지 않고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자치시장의 권한 확대를 위해 자치법규의 권한을 확대해 행정자치시장의 요청을 제주자치도지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시장의 요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장 직선제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을 두지 않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지난 2010년부터 제주도민과 도의회, 제주자치도가 지난한 논의 끝에 의견을 모아 제출한 제도 개선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주장하는 행정시장 예고제는 지난 14년간의 제도 시행을 통해 아무런 효과도 없었음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도민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직접선거제 도입을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출전선 비상, 대외여건 악화 걱정되네

제주지역의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올들어 월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금액과 수출물량이 동반 하락해 하반기 수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가뜰이나 일

본의 경제보복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가 발표한 ‘2019년 7월 제주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113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413만 달러)에 비해 19.7%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소폭 반등한 이후 3개월 연속 수출이 하락한 것입니다. 수출 효자품목인 모노리식집 적회로(비메모리반도체)가 올들어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수출실적도 7795만 5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6% 줄었습니다. 수입도 감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4.7% 반등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7월달 수출실적은 4424만9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1%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도 3289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에 비상에 걸렸습니

다. 그러잖아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제주에도 불뚝이 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뿐만 아니라 수입 규제에도 나선 겁니다. 실제로 7월달 일본에 대한 수출실적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일본의 추가 보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만이 아닙니다. 제주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홍콩도 시위가 점점 격화되고 있어 상당한 악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나주김씨 묘순 (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27일

아들 오상봉
며느리 백기순

가족모지용 토지분양

- 서귀포시 상예동 도로접 자연녹지
- 평장, 자연장 (99㎡까지) 허가지역
- 가격 절충

☎ 010-2272-1550
010-2690-9874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머리카락이 빠집니까?

국내 특허 제품이며 한시적으로 무료제공함. 도내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바이오제품임

무료 제공기간 2019. 8. 27 ~ 2019. 10. 31

※ 모공이 닫힌분은 전혀 효과없음

TEL. 064-725-0622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제주편백우드(영)

제주시 보배길32-16 (제주대학교병원쪽)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에디'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 절차 공고

1. 2019년 8월 21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선우안전유리는 재원기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재원기업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기간내에 당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 제출기간 : 2019년 8월 28일 ~ 2019년 9월 28일까지

2019년 8월 27일

주식회사 선우안전유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록지길 34-7
대표이사 김태희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껌질 잘 벗겨짐

생산자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25개~35개) 4만원
10k(50개~70개) 7만원

문의 **오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